“6천여 비구니 스님 의지처될 것”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

전국비구니회 제12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11월 2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조촐하게 진행됐다. 12대 집행부를 비롯해 1년간 각자의 위치에서 전국비구니회 실무를 이끈 30여 명의 소임자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원력을 다시금 모아내는 자리였다. 행사에 앞서 1년간 전국비구니회를 이끈 12대 회장 본각 스님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물었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본각 스님은 1년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남은 과제에 집중했다. 비구니스님 개개인을 위해, 그리고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위해 전국비구니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편집자주〉



2019년 11월 13일 제12대 공식 출범
코로나 사태에도 공약 실현 구체화
비구니 승가복지구축, 가장 큰 화두
“투명성 · 민주성 확보가 신뢰 초석”

글=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전국비구니회,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한 본각 스님은 소통하는 비구니회, 일하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약속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그렇기에 지난 1년간 스님은 공약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또 일했다. 안정적인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비구니승가의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대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변화, 사찰음식과 불교차문화의 전통 계승과 연구, 비구니승가의 이론적 체계 및 역사성 조명 등. 실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신의 폭은 좁았다.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 사태가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해야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코로나19 사태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었지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외부로 향하는 활동들이 줄다보니 모든 소임자들이 일심으로 매달려 내실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본각 스님은 당면한 과제 중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갔다. 집행부 조직을 개편하고 분야별 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조직 정비 및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초석을 놓고자 했다.

특히 제위원회는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열려있는 전국비구니회,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본각 스님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소수 인원에 의한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각 위원회는 직제와 구체적인 역할, 기능과 운영세칙을 명시한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위원들의 회의는 모두 회의록으로 남겨 기록으로 보관된다. 또 조직운영과 소임자 명단은 물론, 비구니회 회칙를 비롯해 제위원회 및 부설기관 운영규정 등은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본각 스님은 “구성원들이 신뢰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기 때문에 누가 오셔도 시스템에 의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기 위해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전국비구니회가 기획실장 등 소임자를 이례적인 공개채용 형태로 모집, 임명한 것도 집행부가 아닌 인사 · 포상 ·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특징이 잘 나서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막상 소임을 맡으면 너무나 책임감을 갖고 잘 하시는데 드러내질 않아서 인력풀이 좁다.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공평하게 스님들을 등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비구니 명사 법계 후보자 13명을 선정해 교구본사를 통해 추천한 과정 역시 원로 · 명사 추대위원회의 공식 회의에 따른 것이다. 물론 종법상 공식절차가 아닌 전국비구니회 내부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일부 교구본사를 제외한 상당수 교구본사들이 이를 존중했다.

스님은 “비구니승가의 위계와 질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비구니승가의 위계와 질서가 잘 지켜지는 가운데 비구니승가의 발전과 위상제고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한발 더 나아가 종단과 전국비구니회의 관계성 정립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본각 스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비구니 승가복지다. 본각 스님은 “노스님들 중에 주거 공간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젊은 스님들 중에도 어디 사찰이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기본교육 끝나고 선방 갔다 오면 자신의 짐을 어딘가에 내려놓기가 저어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스님은 “소중한 비구니 스님들이 조직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전국비구니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스님들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 비구니 승가공동체, 수행공동체를 통해 함께 수행하고 함께 포교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진정한 승가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복지정책 마련, 재정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생활과 수행에 직결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정책 마련과 실행이 12대 비구니회가 해나가야 할 2단계 과제”라고 말했다.

비구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및 범위의 확대도 과제로 꼽았다. 지난 1년간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시스템을 안착시켰으니, 2021년은 더 많은 스님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비구니 출가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비구니 행자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가톨릭 등 다른 종교계는 이미 외국인 성직자를 받아들이는 추세다. 가능성은 열어두되, 조계종 내 종단 기관과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방향성을 고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년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전국 지회 임원을 비롯한 전체 소임자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비구니회 운영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정책 및 운영에 반영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본각 스님은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도 그리 어둡지 않을 것”이라며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이자 스님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5일 제32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성남 정토사 회주 보광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제32회 포교대상 ‘보광 스님’ 대상 수상

조계종 포교원 11월 25일 시상
보광 스님 “사이버 포교 앞장”

불법 홍포에 기여한 스님과 불자들에게 수여되는 제32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성남 정토사 회주이자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25일 제32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성남 정토사 회주 보광 스님 등 수상자들에게 상을 시상했다.

이날 대상을 받은 보광 스님은 “대상을 준 것에 대해 더 잘하라는 경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포교와 전법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만일염불결사를 통한 신도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불사를 이뤄냈다. 앞으로 대면포교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포교인 사이버 공간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은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최대경 공불련 부산지회장, 이연화 은해사 신도회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출가수행자로서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을 걸었을 뿐인데 송구하기 그지없다”며 “앞으로 더 잘살라는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은 서울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과 서운암 감원 성연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 원광사 주지 보운 스님 등이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 현장의 고귀한 결실을 치하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포교 현장에서 흘린 값진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로 회향되는 자리다. 수상자들의 값진 노고의 결실을 한국불교 곳곳에 구체적인 포교 성과로 현신해 사부대중에게 전법의 길을 열어 보이자”고 당부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불교계 여파 ‘일파만파’

조계종, 전국 사찰에 지침
안거 포살, 결계신고 대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불교계 종무행정과 법회 · 행사 등도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선제적 방역을 위해 전국 사찰에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이 시달한 사찰 지침에 따르면 12월 7일까지 모든 사찰은 법회 · 행사 수용인원 20% 이내만 참여시켜야 하며, 개인 간격은 2m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모든 출입인원은 발열체크 후 인적 사항을 기록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법회와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면 행사는 출입문을 개방해 환기 가능한 상태로 진행하며, 행사 전후에는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합창단 연습 등 사찰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들과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도 완전히 중단된다.

사찰 내 공양은 상주대중에게만 허용되며, 상주대중의 공양 시에도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를 요청했다.

상주대중의 일상생활 지침도 내려졌다. 상주대중은 기도, 예불 집전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실내 환기 · 손씻기 · 손소독제 사용 등의 생활화도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불기2564(2020)년 동안거 포살법회는 결계신고로 대체되며 승려분한신고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불교계 연말 행사의 비대면 진행도 확대되고 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슬기롭게 치유하고 극복하자’를 캐치프라이즈로 2020 불교문화대전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계종 유튜브 및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개최한다.

11월 30일 진행된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2월 4일 열리는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과 12월 7일 열리는 한국불교기자협회의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도 수상자만 참석하는 행사로 축소 ·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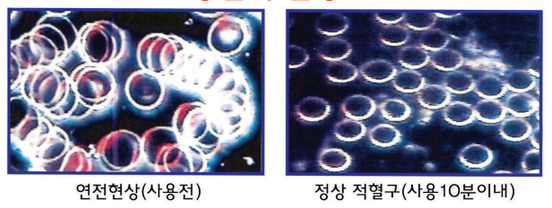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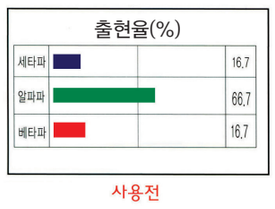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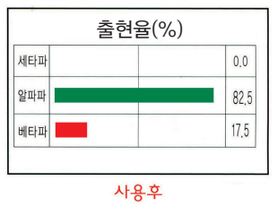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